

보도시점 2024. 12. 15.(일) 배포 2024. 12. 15.(일)

“모국 온몸으로 느꼈어요”..수교후 첫 방문 쿠바 한인들 소감

-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5일간 한국 문화·역사 체험후 귀국길
- 독립운동가 임천택 지사 손녀 “현충원서 조부 만나 뜻깊어”

- 지난 2월 한-쿠바 수교를 계기로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처음으로 고국에 초청한 쿠바 한인 후손들은 13일 귀국길에 앞서 “이번 방문기간 모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” 고 소감을 전했다.
- 재외동포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독립운동가 임천택(1903~1985년) 지사의 손녀 노라 림 알론소(1965년생)와 마탄자스주 검찰청의 테레사 우에르타 긴(1965년생) 검사, 프리랜서 음악가 마이올리 산체스(1968년생) 등 한인 후손 3명을 초청했다.
- 이들은 방한기간 대전현충원 참배와 더불어 독립기념관, 경복궁 등을 방문하여 과거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, K-컬처 공연 관람과 시티 투어 등을 통해 모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체험했다.
- 노라 씨는 “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할아버지(임천택 지사)를 이번에 대전 현충원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” 고 소감을 밝혔다.
- 의사인 그는 “적십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체험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무척 인상 깊었다” 고 말했다.
- * 임천택 지사는 1905년 쿠바 이주 이후 대한애국단 쿠바지부 창설,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부 회장, 임시정부 독립자금 후원 활동을 했으며 초대 쿠바 한인회장을 지냈다.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, 2024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.(국가보훈부)
- 테레사 검사는 “막연하게 생각했던 모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” 며 “앞으로 더 많은 쿠바 거주 한인 후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 고 희망했다.

○ 마이올리 씨는 “쿠바에서 한글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했다” 며 “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보려고 한다” 고 소감을 전했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환송만찬 자리에서 “짧은 시간이었지만 꿈에서도 그리워 하던 모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” 며 “동포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대한민국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” 고 당부했다. 아울러, “한-쿠바 수교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, 한인 후손들이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신상철	032-585-3252

